이 마음 도리 공부 안 한다면 앞에 닥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

☞ 19면에서 계속

동적으로, 아무 고정관념이 없이 술술술술, 24시간 살아나가는 데도 자꾸자꾸 화해서 찰나찰나 이렇게 살죠? 내가 항상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그거는.

물론 은하계에 속해 있는 태양도 있는가 하면 태양의 도움을 받고 있는 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아는 것을 왜 얘기하나 그러겠지만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체가 인간의 마음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또 그보다 더 묘하고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 모든 생명들의 이 껍데기는, 집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껍데긴 짧거나 길거나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데도 먹고 먹히고, 쫓고 쫓기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런 우주 세계에도 별성과 별성이 서로 쫓고 쫓기고, 먹고 먹히고 또 혹성들도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으면 작은 것대로 차원에 따라서 먹히고 또는 먹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성자의 문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거고, 이 우주의 근본의 원리도 다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중성자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내서 여러분이나 과학자들한테 알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보여야 책정을 해서 연구를 할 텐데 보이지 않습니다, 중성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때에 조그마한 것들이 잡아먹힐는지, 어느 때에 폭발이 될지, 우리 사는 데에도 그렇듯이 그런 문제들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가,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공부를 아니 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평발이요, 평손이요, 둘이 아니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상세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은하계에서도 물론 별이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빛깔도 엷고 붉고 이렇게 서로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도 차원이 있듯이 그것도 차원에 따라서 강렬하게 빛을 내는 것이 있고 희미하게 빛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별이 차원입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것은 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빛이 없어지면, 늙은 것이 돼서 껍데기를 세 껍데기만 벗으면 다시 별성이 강렬해지고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별성 하나가 여섯 개를 만들 수도 있고, 아홉 개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바로 구십 개를 만들 수도 있고, 별성은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은하계의 별성만이 그런 게 아니라 태양도 강렬하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축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크게 승화를 시킬 수 있는가 하면 미신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자기'입니다. 지금 상반되는 걸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계에서도 그렇게, 즉 말하자면 한 원자가, 즉 중성자에 관한 건이 있으면 이 원점이 그걸 조절을 해서 비서 노릇을 잘합니다. 이건 인간과 같습니다. 모두가 같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깨달으면 전체를 안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다면 또 구름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구름, 가스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수만 가지, 지금 과학적으로 이름을 따지고 본다면 수소니 탄소니 이산화탄소니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동일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름이 다르더라도. 우리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눈, 귀, 코 이름이 다릅니다. 입도 또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섯 가지가 다 포함돼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조금씩은 다르지요. 듣는 거 다르고, 보는 거 다르고, 냄새 맡는 거 다르고, 말하고 맛을 아는 거 다르지만 그러나 한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마음을 조절한다면 그거는 바로 둘이 아닌 까닭에 역할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도리를 몰라서 조절을 못 한다면 수십억 년 후에는 어떨지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나갈지 이런 문제들이 빨리 닥칠지 늦게 닥칠지는 아무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 죽느냐? 나이가 들어서 죽느냐, 젊어서 죽느냐 책정할 수 없듯이. 또 그것도 그거지마는 크게 팽창을 하느냐 작게 축소가 되느냐는 것도 그 가스의 탓이요, 중성자의 탓이란 얘깁니다. 그러면 모든 것, 즉 구름, 가스가 천체의 활력이 크다는 거, 안개와 구름이 활력이 크다는 거. 즉 말하자면 은하계에서도 지금 시쳇말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진 물과 같은 안개라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걸 수소라고 이름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가스가 한 가지 두 가지만 아니라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아홉 가지까지 화해서 진화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그 태양의 뜨거운 걸 조절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화풍 속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나왔고, 지수화풍이 길러 주기도 하고…, 생명을 낳게 해 가지고 길러 주기도 하고 이끌어 주기도 하는 건 전체 지수화풍의 역할입니다.

> 잘되는 걸 취하다 보면 어딘가 잘못되는 수가 있고
> 잘못되는 걸로 취하다 보면 잘되는 수도 있다.
> 양면을 다 놔야만이 참나를 발견한다.

여러분도 지수화풍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사는 것도 지수화풍입니다. 바람과 더불어 전체가 화해서 공기가 되는데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각각 따져 놓고 본다면 물이 없어도 우린 살 수가 없고 불이 없어도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안에도 있지만 바깥에도 있어. 지금 안에도 공장장이 많고 공장이 많어. 위 공장이니 장 공장이니 방광 공장이니 췌장 공장이니 이자 공장이니 하는 그 공장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 가지고 나가는 회장이, 선장이 바로 운전수나 마찬가집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자동차를 이끌어 가는 운전수 말입니다.

지금 구름이나 가스나 물이나 올려 주면 내려오고 내려 주면 올라가면서 그렇게 묘법이 수없이 천만 가지로 나고, 내려올 때에 천만 가지로 그렇게 통신이 되고, 사람들을 길러 주고 생명을 낳게 합니다. 그 차원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묘한 법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다면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고장마다 닿지 않는 데가 없고, 딛지 않는 데가 없고, 내 몸 아닌 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체험을 해 보니까 부처님 말씀의 뜻이 내가 태양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여기서 저기를 육안으로 봐서 보는 게 아니라 태양이 곧 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멸하거나 터지지 않게 심안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비유하자면 아주 큰 하마 같은 입이 조그마한 혹성과 별들을 집어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는 거, 이런 것도 모두가 태양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태양이 될 수 있고, 내가 다른 은하계가 될 수 있고 그 천체 한마음이 내 마음의 근본이 될 수가 있고, 내 근본이 바로 저 은하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아님이 없는 것이요, 내 자리 아님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 아닌 것이 없고 모두가 둘이 아니니라. 그래서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양자가 합쳐진다면 바로 그게 주장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불성이라는 문제입니다. 불성은 기다랗게 작대기도 됐다가, 뚱그렇게도 됐다가, 아주 유연하게 대가리만 탁 들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재권, 자재권을 가졌기 때문에 삼천대천 세계의 어느 거든지 내가 아니 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꽃 한 송이, 저런 나무 한 그루, 어떠한 식물이나 동물이나, 여러 가지로 말해서 일체 생물이 다 될 수 있는 거. 그러니 살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세상에도 내 자리 아님이 없는 것이 유, 무를 한데 합쳐서 한자리라 이거야, 한자리. 그래서 바리때의 공양을 한 그릇을 잡숫고 앉으셨다 이거지.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이 도리를 공부를 안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 하나만 없애면 된다 이런 것은 고 하나만 없애면 전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천상 인간에도 머무르지 말라고 그랬거늘 선으로 나간다, 악으로 나간다, 이건 잘못된 거고 저건 잘된 거다 하는 것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이 공부 못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것은 그른 일이다, 이렇게 배우신다면 이 공부는 영 못 합니다. 자유권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른 것으로만 끝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잘되는 걸로만 끝이 나는 것도 아니라, 잘되는 걸 취하다 보면 어딘가가 잘못되는 수가 있고, 잘못되는 걸로 취하다 보면 잘되는 수도 있어. 양면을 다 놔야만이, 양 개체를 다 놔야만이 참나를 발견한다는 얘기죠.

지금 내가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은 업식으로써 뭉쳐진 인연 때문에 눈이 안 보여. 이 의식만 가지고서 죽어서 돌아다니다가 새 둥우리로 안 들어가나, 개구리 둥우리로 안 들어가나, 뱀 소굴로 안 들어가나, 소로 안 들어가나. 보질 못하니깐 짝짓기를 하는데, 사람이 그러는지 새가 그러는지 몰라. 뱀이 그러는지 짐승이 그러는지 그걸 분간을 못 하니까 그냥 그리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한 철만 나고 달리 화한다면 좋은데 거기에 물이 들어서, 의식이 물질로만 보고 물질로 사는 법만 알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고, 쫓아야 하고, 먹어야 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세세생생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 그 새끼로 태어나서 어미가 되고 어미로 태어나서 또 그 새끼가 되고, 벗어날 수가 없으니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 도리를 모르면 죽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간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무엇이 인간으로 그 애를 쓰고 나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이 또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그건 헛겁니다, 헛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을 갖고 나온 인간이, 수십억 년을 거쳐서 모습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진화를 해서 인간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갈 순 없지 않습니까? 응? 세상에 어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도리를 알고서야 어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3월 19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행 스님 법어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초창기 법문의 정수가 담긴 결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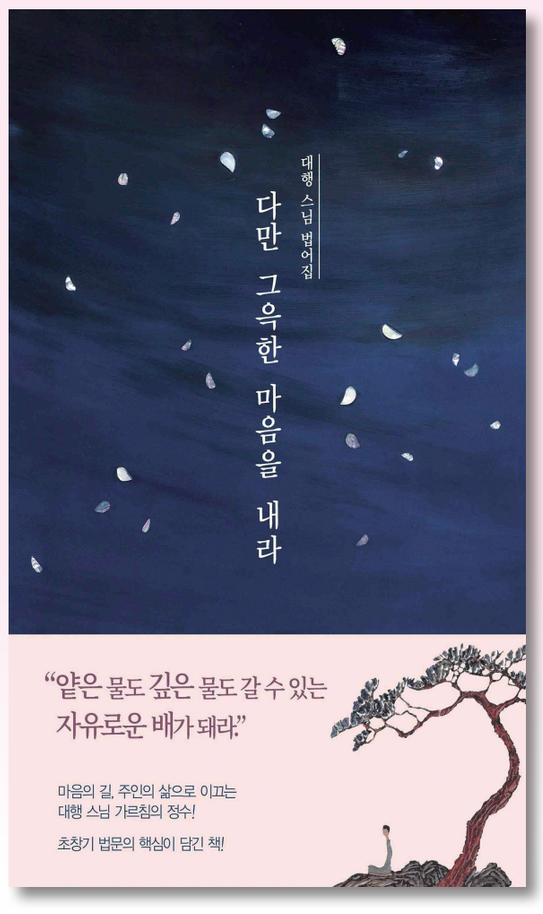
"얕은 물도 깊은 물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배가 되어라."

마음의 길, 주인의 삶으로 이끄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

스님께서 30여 년에 걸쳐 설하신 방대한 법문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대로 담아 낸 법문집들은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무한량의 자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알음알음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경을 보되 누가 보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목마를 때 스스로
물 한 컵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한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 말씀에 담긴 깊고 간곡한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가 18,000원 / 375쪽 /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